

LA 불법이민 단속 반대시위 격화...“주방위군 2천명 투입”

단속 강화에 이틀째 시위...섬광탄·최루탄 동원 강경 진압

트럼프 “민주당 주지사가 못하면 연방정부 개입해 해결할 것”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2천명 투입을 명령했다고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굶도록 방치된 무법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 2천명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LA에서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LA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패러마운트 지역의 히스패닉계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는 시위대 수백명이 이민 당국 요원들과 충돌했다.

시위 진압복을 입은 요원들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은 요원들이 쓴 최루탄

을 맞고 기침을 하면서 얼굴에 우유를 뿌리는 장면이 목격됐으며, 당국은 사람이 더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통행로를 통제했다고 NYT는 전했다.

AP 통신은 거리 곳곳에서 나무와 쓰레기 등이 불에 타 연기가 솟구쳤으며, 시위대가 국경순찰대 차량을 발로 차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전했다.

이민자 지지 단체들은 이민 당국 요원들이 이날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 LA 파라마운트 지역의 홈디포 매장을 급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에도 LA 시내에서는 ICE의 대대적인 단속 작전이 벌어져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대거 체포돼 끌려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반발한 시위대가 차량과 건물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하는 일이 잇따랐으며, 일부 시위대는 연방 정부 요원들을 향해 물건을 던져 요원이 섬광탄으로 대응하는 일도 잇따랐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LA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등 약 120명을 체포했다고 NYT는 전했다.

토머스 호먼 트럼프 행정부 국경 차르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 정부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이 게임에서 앞서나가고 있으며 이미 (군인들)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티 님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위대를 향해 당국의 이민자 단속을 방해한다면 “최고 수준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시위가 지속될 경우 연방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뉴섬 주지사를 비하하는 표현) 주지사와 개런 베스 LA 시장이 자기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들 연방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즉 폭동과 약탈자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적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LA에서의 연방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돕기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있으며, 폭력이 계속된다면 캠프 펜들턴의 현역 해병대원들도 함께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라마운트에서 열린 시위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작전이 진행된 후 한 남성을 경찰이 체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콜롬비아 보수야권 대선주자 유세 중 총기 피격...“중태”

좌파 성향 현 정권 비판

당국 “용의자 한 명 체포”

콜롬비아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보수 성향의 야권 대선주자가 7일(현지시간)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병원에 옮겨졌다고 로이터, AFP, A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겔 우리베 투르바이(39) 상원의원이 이날 오후 수도 보고타 시내의 한 공원에서 연설을 하던 중 총격을 당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중태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AFP 통신은 치료에 관여한 의료진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베 투르바이 의원이 머리에 두 발, 무릎에 한 발씩 총 세 발의 총탄에 맞았다고 보도했다.

우리베 투르바이 의원이 소속된 보수 야당 중도민주당은 성명에서 무장한 무리가 그를 등 뒤에서 총으로 쏘았다고 밝혔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실은 성명

을 내고 폭력 사태에 “절대적으로,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콜롬비아 국방부 장관은 총격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으며, 공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베 투르바이 의원은 알바로 우리베 전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끄는 보수 성향 중도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열리는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우리베 전 대통령과 성이 비슷하지만 혈연 관계는 아니다.

좌파인 여당 페트로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 왔다.

모친인 디아나 투르바이는 1990년대 콜롬비아의 악명 높은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이끄는 마약 카르텔에 의해 납치돼 살해당한 기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표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이번 암살 미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日 연례 최대 실사격 훈련 진행...장사정 미사일 발사장치도 공개

일본 자위대가 연례 최대 규모의 실탄 사격 훈련을 8일 진행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이날 오후 시즈오카현 히가시후지 연습장에서 일본 최대 규모의 실탄 사격 훈련으로 불리는 ‘후지종합화력연습’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예년처럼 외딴섬에 적이 침공해 이를 막고 반격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됐으며 일

반 전차는 물론 대전차 헬리콥터와 오스프리 수송기, 정찰용 드론 등도 투입됐다.

특히 일본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위해 개발 중인 개량형 장사정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장치도 처음 공개, 전시됐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도 훈련을 참관했다. 이번 훈련은 낮과 밤 2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두

일되는 탄약류는 760으로, 금액 기준 8억7천만엔(약81억8천만원) 규모라고 자위대는 전했다.

후지종합화력연습은 원래 자위대원 교육 기관인 후지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시작됐지만, 대외 방위력 과시를 위한 행사로 변모해 한동안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다가 현재는 일반공개는 하지 않고 편집된 동영상(www.youtube.com/watch?v=__ACe__qv01ic)만 배포된다. /연합뉴스

러, 포로교환 앞두고 우크라 연일 공습...5명 사망

하르키우서 3명 사망, 신생아 등 17명 부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포로 교환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를 비롯한 전역을 공습해 최소 5명이 사망했다.

7일(현지시간) AFP·A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6·7일 밤사이 미사일 9발과 드론 206대를 날려 보냈으며 그중 미사일 7발과 드론 87대를 격추 또는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3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나 북동부 하르키우에서는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부상자에는 1개월 반 된 신생아와 14세 소녀가 포함됐다.

미사일 3발과 항공 폭탄 5발, 드론 4대가 하르키우시 2개 지구를 타격했다고 올레흐 시네 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가 전했다.

이호르 테레호우 하르키우 시장도 아파트 건물 18채와 주택 13채가 파손됐으며 이는 “전면전 개시 이후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남부 헤르손에서도 러시아의 포격에 고층 건물 2채가 파손되면서 2명이 사망했다고 올렉산

드르 프로쿠딘 헤르손 주지사가 전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살상을 끝내려면 모스크바에 더한 압박과 우크라이나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지난 1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기습 공격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이후 연일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30일간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휴전하자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20%에 달하는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서방의 군사 지원을 금지하는 등 휴전 조건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원호
220603-중-139779